



### 문태길 시인 시선집 '한라산 가는 길' 출간

“아내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추출된 선집”

팔순을 넘긴 시조시인인 제주 문태길(사진) 시인이 시선집을 내기로 나섰다. 열림문화에서 펴낸 '한라산 가(歌)는 길(吉)'이다.

시인이 “아내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추출된” 시선집이라는 ‘한라산 가는 길’은 코로나19 등으로 두문불출해진 근래의 일상이 안긴 ‘선물’이다. 시인은 “꼭꼭 숨어 있어 뭉어 있으면서 그동안 버려두었던 작품들을 모아 퇴고에 퇴고를 거듭하다 보니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며 “감사와 사랑과 용서의 낱말들이 노을 하늘에 붉게 물들어 아름답게 보인다”고 적었다.

선집은 1993년 나온 첫 시집 ‘마라도 등대’를 시작으로 ‘청진기 앞에 서다’, ‘꽃들의 반항’, ‘산(山)도 고민을 한다’, ‘깨어나라 여의도여’, ‘노을 뉘엔 다 곱다’ 등 여섯 권을 바탕으로 짜여졌다. 연시조나 산문성 강한 사실시조가 주류를 이루는 시조 현장에서 문 시인은 “시조의 원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고도로 응축된 시적 구조를 요구”하는 단수시조 중심으로 창작(권갑하 시인)을 해왔다.

중등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시인은 황산시조문학상, 제주정백리상, 한국교육자대상 등을 수상했다.



다. 제주시조문학회 회장, 제주문인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진선희기자

### 고영권 정부부지사 태풍 대응 상황 점검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부지사는 2일 오전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에 따라 어선이 피항 중인 서귀포항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는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정민구 부지사,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김태엽 서귀포시장,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 홍석희 제주도 어선조합의회장, 전남선 서귀포어선조합의회장, 강유신 서귀포어선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고영권 정부부지사는 “선박 피항과 대피 선박에 대한 결박을 점검해 태풍 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어업인들의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선 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정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포럼 발대식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3일 '2020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포럼 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할 예정.

일도2동 코로나19 방역 활동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일 제주시 일도2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일도2동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참석할 예정.

###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안홍모·좌혜선 위촉

고영권 변호사가 제주도 정부부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던 '제주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자리가 채워졌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공고를 통해 안홍모(사진·왼쪽)·좌혜선(사진) 변호사를 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제주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관련 소송수행 ▷법령 해석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자문 ▷교육·학에 업무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맡는다.

### 제주농협 태풍 대비 긴급대책회의



제주농협(본부장 변대근)은 2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주요 간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상황 정보 공유 및 사전 준비태세 점검,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방안 등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변대근 본부장은 “제8호 태풍 ‘바비’에 이어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연이어 제주로 북상하면서 농업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태풍 대비 준비상황을 다시한번 점검 바라며,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제주농협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 삼도1동바르게살기위원회 물품 기탁



제주시 삼도1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상진)는 지난 1일 관내 거주하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정(20가구)에 쌀과 라면 등 5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온정을 나눴다.

### 김동근씨 한국축산학회 학술대회 최우수상

제주대학교는 동물생명공학전공 류연철 교수(동물성 단백질공학) 연구실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김동근(사진)씨가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사)한국축산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구두 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 화산송이를 이용한 식육 숙성 방법'을 주제로 발표해 축산물 이용과 가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 제주대 메란 박사 우수포스터상 수상

제주대학교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은행센터(소장 김재훈 교수) 박사후 연구원 이자 바이오 소재 김소미 교수 연구실의 메란(MERAN) 박사(스리랑카)가 최근 전자회의로 열린 '한국응용생명화학학회(International Symposium and Annual Meeting of the KSABC)'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메란 박사는 이번에 방사선 저항성 인간 유방암 세포에서 10-진지롤(gingerol)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안했다.

### 김중근 전 도건설국장 '제주 건설사' 기증

김중근 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이 저서 '제주 건설사' (2017)를 보완해 펴낸 '중보 제주건설사' (2020) 50부를 2일 제주도에 무상 기증했다.

김 전 국장은 도·제주시·북제주군·남제주군에서 40여년간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임하면서 5·16도로, 110도로 등 도내 주요 도로공사의 설계·감독 건설에 참여해 1960~1970년대 제주행정 현안인 '길의 혁명'의 산증인으로 불리고 있다.

'중보 제주건설사'는 고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도로·교량·교통과 관련된 역사를 집대성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 사료를 수집·재구성해 '길'이라는 주제로 제주 행정사를 엮어냈다.



김 전 국장은 “올바른 기록을 후손에게 남기고자 용기를 내어 책을 발간하게 됐다”면서 “도민과 후배 공무원들의 제주역사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기증받은 도서를 제주지방자치사료관에 비치하고, 한라도서관과 읍면동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 제주신용보증재단 창립17주년 기념식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은 지난 1일 재단 회의실에서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오인택 이사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재단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실행한다”며 “지난 17년 간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주도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적십자사 '마음 돌봄 챌린지' 선포식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달 31일 제주적십자 나눔홀에서 변대근 NH농협제주지 역본부장 및 봉사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마음 돌봄 토탈돌봄 챌린지 선포식'을 개최했다.

마음 돌봄 챌린지는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엔택트 마음 돌봄 토탈돌봄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워했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 064) 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